

# 오피니언

## 월/요/광/장

김병식



사이의 강남스타일과 말춤의 열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미국을 넘어 파리, 런던을 거쳐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지구촌의 곳곳에서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의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4달이 채 안되어 세계 7억 명이 노래와 춤을 접했다고 한다. 한글로 만든 노랫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현상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의 흐름으로 '제3의 물결'을 주장한 이후, 이 사이 현상이 우리가 접한 가장 극적인 경험이라 아니까 싶다.

아시아나와 21세기 변화의 핵심은 세계화이다. 유럽의 경제위기, 중국의 G2등장으로 인한 패권의 이동(power shift), 세계적 기업들 간의 무한 경쟁, FTA의 찬반, 국제행사의 다변화 등 세계화의 관련들이 우리의 일상 곁에 온지 벌써 오래다. '세계화'는 향후에도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올 태세다.

대선이 한창인 중요한 시점에서, 다소 새삼스러운 '세계화' 이야기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여수 엑스포'와 'F1대회'를 비롯한 비교적 큰 규모의 국제행사가 있었다. 향후

에도, F1대회는 몇 회 더 예정되어 있고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를 비롯한 크고 작은 국제 행사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의 F1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작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여러 의견들과 접할 기회가 있었다. 견해 중 많은 부분이 우

공유할 필요를 절감하였다. 세계화는 대체다. 이 메가트렌드 속에서 이러한 국제 행사를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국제화 된 인력과 경험을 쌓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신명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은 많은 부분 동참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바깥은 세계화, 정보화로 대표되는 제3의 물결로 출렁이는데, 우리는 앨빈 토플러의 제1의 물결로 농업화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시점이 향후 전남권의 미래에 대하

광주 및 전남의 지자체 본청에 인재담당관제도를 두어 우수 인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우수한 핵심 인력을 확보 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곳 출신의 우수재원은 밖에서 공부 를 마친 후 U턴하지 않고 있고, 외부인의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다. 고비용이 필요하고 유인 할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다. 특히 우리 지역과의 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끼는 외부인들이 의외로 많다.

조심스런 말이지만 사실, 우리 지역 사람들 중에는 비판력이 뛰어난 이가 많다. 사실 이런 분들은 많이 필요치 않다. 100명중 3명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폄으로 뛰는 97명의 우수한 일꾼이 필요하다. 바닷물이 짠 이유는 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농도는 3~3.5%가 적당하다. 이보다 높으면 사해가 되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비판보다는 일 하는 인재가 더 중요한 이유이다.

강조하고 싶다. 지금이, 우리 지역이 제3의 단계로 점프할 유일한 기회이다. 호남이라는 높은 담장을 헐고 토포악발(土浦惡發)의 정신으로 인재들을 불러 모아 바로 국제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농진 산업화를 뛰어넘어 팔을 걷어붙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초당대 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바닷물 소금 농도가 3%인 이유

리지역의 취약한 국제인프라, 외국인들과의 접촉에서 나온 이력저편 미숙함, 국제행사의 경험 부족, 행사 측으로부터의 소외감, 소박한 시민들의 행사비용에 대한 걱정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물론 영암이라는 작은 군단위에서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치른다는 자부심에 관한 긍정적 의견도 없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행사에 대한 미래가치와 의미 그리고 실제적 손익과 대응책 등에 대한 사례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참조하고 자료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여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남이 아닌 우리의 손으로, 제1의 물결에서 바로 제3의 물결로 도약하기 위한 점프를 시도할 때이다.

사실상 미래의 핵심요소는 '우수 인재'이다. 우리 지역의 일을 창의적으로 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는 그 본질상 변화가 무쌍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은 누가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하는 사람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 작은 배려로 2% 채워주기

지겠는가, 한 잔, 또 한 잔 하다가 어느새 일 끝이 빨개졌다.

시간이 흐르자 함께 자리를 하던 동료는 먼저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하고 마지막 남은 자들끼리 한 잔 더 하다가 결국은 다 돌아가고 P씨만 남았다. 그런데 P씨는 이전에도 읍주운전으로 발급증을 받은 적이 있었고, 취중에 자신이 차를 몰았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결국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경찰서로 연행된 P씨.

나중에 P씨의 소식을 들은 동료는 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물론 P씨는 성인이고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당시에 동석했던 동료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배려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 P씨가 술이 약하다는 것을 눈치챈 일행 중 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마지막까지 남아 택시를 태워 보냈다면, 아니면 대리운전이라도 불러줬다면 P씨의

현재는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도로에 잠들어 있다가 적발됐기 망정이지 상대방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의 가해자가 됐다면 결론은 더 끔찍했을 수 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타인에 대한 약간의 배려로 예방할 수 있는 범죄가 적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 A군과 피해자 B군이 그렇다.

조직적인 배후세력이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의 넘쳐나는 에너지에 장난기 충만과 절제력 부족이 더해져서 끊임없는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다.

반에서 체력이 가장 크고 성질 급한 A군이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몸집이 작은 B군이 그 옆을 지나가다 A군을 건드렸다. 순간 잠이 깨 A군은 "누구나"라고 소리치면서 B군을 가격했고 B군은 이내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 법조칼럼



송지현

살다보면 나름대로 사회 규범 내에서의 의무를 다했고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인간 관계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남은 앙금과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요즘은 '2% 부족할 때'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읍주운전으로 구속된 P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스트레스 많은 직장생활에서 가끔 동료나 후배들과 나누는 식사 자리는 중요한 활력소 역할을 한다. 더구나 상대편 쪽에서 뭔가 신선제니 일이 있다고 생각해 저녁 대접을 한다면 더더욱 즐거울 뿐이다. 어찌 반주가 빠

## 기고

### 광주송정역,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서종진

1913년을 전후한 철도개통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던 송정리가 2009년 광주송정역으로 역명을 개칭한 이래 또다시 비상하고 있다. 1913년 10월 1일 호남선 완성으로부터 꼭 100주년이 되는 2013년을 희망차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총복 오송부터 광주송정역까지 호남고속철도 건설이라는 대역사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운산까지 93분(현재 168분)이 소요되어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국토 서남권의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2013년 말 경의선 수색역부터 공평철도가

연결되면 광주송정역에서 인천공항까지 KTX가 완전 개통되는 2015년부터는 2시간 9분이면 바로 갈 수 있게 된다.

광산구는 1988년 1월 광주직할시에 편입되면서 지역발전의 중흥기를 맞게 되는데, 편입 당시 13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2년 현재 40만 명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도·운남·신항·수원지구 등 지속적인 도시 외연 확장에 따른 청·장년층 세대의 인구 유입으로 거주자의 평균 연령이 33세에 불과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말 광주송정역 이용객은 145만명, 광주송정역과 연결된 도시철도 광주 송정역 연간 이용객은 190만 명이었으며, 광주공항 이용객 또한 138만 명이었다. 이와 같은 교통 수요는 물론이거니와 영광·함평·목포·해남 뿐만 아니라 전북의 고창·부안에 이르기까지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

사·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이 입주하여 5만 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 빛가람 혁신도시는 말 그대로 '앞이더먼 코담방덕'에 있는 문화·관광·교통의 결절점에 광주 송정역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는 이곳에 열차·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과 상단·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 시설 및 환승 지원 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광주송정역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향토강과 극락강이 합류하는 영산강을 앞으로 하고, 한말 의병활동의 최후 보루였을 뿐만 아니라 광산의 주산인 어등산을 뒤에 두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이다. 또한 '철도에 의하여 생겨나고 철도로 성장'한 만큼 호남선과 송정리에서 분기해

광주와 담양으로 통하는 광주선이 1922년 12월 개통된 이래 1930년 광주~남평~화순~보성~순천~여수까지 경전선이 이어지면서부터 그야말로 길목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광주도시철도 1호선과 맞닿아 있고,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나주~장성간 국지도 49호선, 그리고 나주와 호남고속도로를 잇는 국도 13호선이 광주송정역 앞뒤를 관통하고 있으며, 영광 가는 도로는 서해안으로 향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공항이 지척에 있어 하늘 길을 열고 있는 그야말로 4통 8달 교통의 요충지에 광주 송정역이 자리함으로써 철도·버스 등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을 도모하는 복합환승센터 입지로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국비지원과 함께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1·2단계 개발과정을 거쳐 앞으로 광주와 전남·북을 아우르는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시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민간투자 유치에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멀지 않아 보이는 희망도 있다.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외국의 경우 일본은 소비기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미국은 판매유효기한과 포장일자, 최상품질기한 등을 쓰고 있다고 한다. 품질유지 기한제도는 재제된 일자가 지나더라도 일정 품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지만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인식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우리의 유통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영봉·목포시 은금동

폐기해야 할 제품은 아니라고 한다. 그 말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방치된 제품이 무조건 상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며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최적의 보관상태만 유지한다면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식품의 폐기율을 줄이고, 그냥 버려지는 값 막아서 가격을 내리는 요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유통기한'이라는 표시제도의 문제점을 고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시설

### 화순 의약·백신연구소 건립 차질 안 된다

생물 의약·백신산업의 전진기지로 기대를 모았던 화순 '프라온 호퍼 한국 연구소'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독일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프라운 호퍼와 정부, 전남도가 합작 투자하는 이 연구소는 소장 선임 등 운영권 문제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총 372억 원(국비 265억 원·지방비 62억 원·프라온 호퍼 45억 원)을 투자해 화순을 생물 의약과 백신 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국고 12억 원을 들여 연구장비 일부 구입했고, 올해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가 등 15명을 채용, 연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양국의 문화적 차이가 연구소 건립에 걸림돌이 됐다. 프라운 호퍼 측은 "아무리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연구소 내부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법"이라며 운영권·인사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는 "연구소장으로 한국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국내 관행상 상급기관 건립을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화순 임시 프라운 호퍼 연구시설에는 독일인 연구 인력을 한명도 없고, 합작 연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연구기관에 인사와 운영 등 직권을 주는 해외 연구소의 특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우를 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구소 건립 파행은 교과부와 전남도에 책임이 있다. 자칫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다.

전남도는 프라운 호퍼와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자체 연구 내지 새로운 해외 연구재단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립이 지연될 경우 국비 등이 불용처리 돼 연구소 자체가 물거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전남도는 프라운 호퍼 측과 재협상을 통해 전향적으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실익을 따져야지 관행만 내세우는 건 설득력이 없다.

### '열악한 재정' 시교육청 청사 이전 재고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백지화했던 청사이전 사업을 재추진해 지탄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교육청은 열악한 재정현황을 이유로 정부에 200억 원대 교육예산 추가자원을 촉구하고 있으면서도 500여억 원이 소요될 청사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또 이전 검토중인 청사도 10억 원의 투입, 증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기도 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장취구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시교육청을 방문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시교육청 청사이전 계획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모두 512억원을 예상했다. 사업비 일부는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고 일부는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청사 이전 추진 배경으로 우선 현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청사 주변에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가 들

어설 예정이어서 교통혼란으로 행정지원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988년 지어진 현청사는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다 지난 해 교육예산 우선순위를 따져 불요불급 이유로 백지화된 사업이다. 게다가 현재 아파트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도 하지않은 상태여서 시교육청이 제시하는 이유는 공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교육계에서 교육현장인 노후 학교 재건축 등 학교 인프라가 우선순위 아니냐는 불만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교육청은 내년 필요한 교육사업 예산을 모두 1120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실제론 342억 원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이 관공에 개혁 예산을 들여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장 교육국의 교육혁신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청사 이전에 대한 결정을 재고, 일선 현장에 먼저 투입할 곳이 없는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다.

## 無等鼓

꿈이나 깨우기가 겨울잠에 들어가고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머니들은 김장을 서둘렀다. 추운 겨울을 나는 데 '반(半)식량'이자 비타민 공급원이었던 김장 김치는 겨울의 초인인 입동(立冬) 즈음에 담겨야 제 맛이 난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배추가 얼고 싱싱한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었다.

조선 후기의 문인인 정학유도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시월

치매 승려들의 김치독으로 사용되어온 것이라 한다. 김장의 저장기간은 늦은 가을에서 이른 봄, 햇초소가 나올 때까지 3~4개월 정도였다.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김장 풍습도 크게 바뀌고 있다. 운안화 탕이치가 점차 늦춰지고, 김장을 하는 가구나 양도 크게 줄었다. 냉장기술의 발달로 김장 김치를 연중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최근 소비자패널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구는 전체의 52.7%로 지난해(55.7%)보다 더 줄었다. 두 가구 중 한 가구만 김장을 한다는 예가다. '자인이나 친지를 통해 조달 받고, 장다리무 알뜰밭도 일잔개 간수

했다'는 응답자는 36.5%. '포장김치를 사 먹었다'는 비율은 10.8%였다. 해가죽이 일반화하고 맛벌이와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편리성이 강조되는 세대의 반영이겠지만, 가정마다 독특한 맛을 자랑하던 김장 김치가 사라져가는 것은 아쉬운 풍경이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 김장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광복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